

기후 좋고 먹거리·볼거리 풍성... 장흥, 동계 훈련지 인기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30개 유소년 축구팀 756명 훈련 진행 15명 이상 팀에 훈련비 200만원 지원...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장흥군이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30개 팀 756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겨울철 전지훈련으로 장흥을 찾았다고 밝혔다.

장흥에 체류하고 있는 선수단은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장흥초등학교, 장흥중학교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장흥군은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으로 많은 스포츠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전지훈련에 참여한 15명 이상의 유소년 축구팀에게 200만원의 훈련비를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스포츠 시설 정비, 구급차, 환경정비 인원 배치 등 훈련 환경 정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편백숲 우드랜드,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남진전망대, 이철준 생가 등 지역 문화·관광·역사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팀별로는 담당 도우미를 지정해 주요 관광지, 먹거리 등을 안내하는 등 전지훈련 기간 중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장흥군을 찾는 유소년 축구팀의 규모는 지난해 22개 팀 450명에서 올해 30개 팀 756명으로 크게 늘었다.

군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숙박비·식음료·지역 특산물 판매 등 6억원 이상의 직접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수단과 가족들이 지역을 방문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마트의 매출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도 활기를 띠고 있다.

장흥군은 2025년 1월 개관 예정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고삐를 죄고 있다.

체육인재개발원이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 연간 약 12만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장흥군은 예상한다.

축구, 야구, 배구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체



오는 21일까지 장흥으로 전지훈련을 온 유소년 축구팀이 장흥심천공원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육인재개발원과 더불어 지역을 찾는 유동인구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은 봄이 가장 빨리 오는 따뜻한 고장"이라며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농산물, 설 명절 앞 최대 30% 할인

온라인몰 '화순팜' 다음달 8일까지...100만원 구매시 10% 추가

화순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hwasunfarm.com)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 30% 할인 판매를 한다.

화순군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화순팜 가입 회원이라면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20% 할인권(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권(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신규 가입하면 1000원 할인권을 받는다. 화순물에 갑진년 새해 다짐을 알리는 댓글을 달면 10명을 뽑아 3만원 상당 화순팜 상품을 제공한다.

화순팜 상품을 사고 후기를 남기면 10명을 뽑아 2만원 상당 화순팜 상품을 준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 삼서·삼계·서삼면 태양광 설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선정 37억5000만 원 투입



주택용 태양열 설비.

장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월 전기요금을 4만~6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태양열 설비를 갖추면 별도의 시설 없이 온수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2억3000만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도·군비 등을 포함해 총 3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삼서·삼계·서삼면 신재생에너지 설

비 보급을 지원한다. 본격적인 추진 시기는 오는 2월부터다.

장성군은 앞서 2022년 장성읍과 황룡면 일부지역 21억7000만원, 2023년 진원·남·동화·황룡면 46억8000만원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내년에는 북일·북아·북하면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확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 도시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군, 좁은 도로 150곳에 소화기 설치

화재위험 취약 시설 점검 등 월 1회 이상 안전문화운동

함평군은 좁은 도로 150곳에 공용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안전문화운동'은 지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평군은 겨울철 화재 예방 운동과 화재위험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통안전 운동 등 계절별·주제별 안전문화운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의용소방대, 모범안전자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위촉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협소 도로 공용소화기 보관함 설치

(150개소) ▲홀몸노인 등 화재 취약 주거에 소화기·경보감지기 보급(각각 300개) ▲침수위험 주민 구명조끼 보급(450개) ▲함평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생명 보관함 설치(4개소) ▲지능형 폐쇄회로(CC)TV 추가 도입(200조) 등을 추진한다.

또 저화질 CCTV를 고화질 사양으로 교체한다.

함평군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군민안전보험 관련 예산을 대폭 올렸다. 보험 보장 32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8.8% 늘었다. 이 가운데 7개 항목은 신규 추가했다.

한편 함평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명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AI 자작곡 '강진여행 노래' 들어보시렵니까?

휴대폰 QR코드 인식하면 재생...경쾌한 멜로디로 주요 관광지 홍보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한 강진군이 인공지능 챗GPT 기술을 활용해 '반값 강진여행 노래'를 만들었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값 강진여행 노래'(일명 반값송)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다.

이 노래는 QR코드(사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들을 수 있다.

'반값송'은 강진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경쾌한 선율과 노랫말에 담았다.

출렁다리와 정자전망대로 유명한 강진 유일의 유인도, 가우도에서 쥘트랙을 타고 내려오며 보이는 시원스러운 바다 풍경과 함께 노래가 어우러진

다.

챗GPT 기술을 활용해 노랫말을 뽑아냈다.

작곡은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이 또 다른 인공지능인 '수노'(SUNO)를 활용해 선율을 만들어냈다.

'수노'는 음악 제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게 음악을 생성한다.

강진군은 앞으로 사용 방법 교육을 활성화해 강진군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군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의 전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나해에는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행정사무의 자동화, 자동 글쓰기 등 총 20건의 발굴 시연을 열기도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연회는 강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업무 혁신을 실현해 군민에게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 교육장' 재탄생

습지체험존·지구시간여행관 등 단장 후 개관...생태계 중요성 학습지진·화산 등 놀이로 오감체험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안에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담양어린이과학체험관)이 새로 단장한 뒤 최근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린이 체험 공간을 추가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기후변화와 대응을 실천하는 가상현실(VR) 체험, 기후 해설사 체험을 할 수 있다.

지진, 화산, 주상절리 생성 등 놀이를 통한 오감 체험도 한다.

1층에는 '습지과학체험존'이 들어섰고, 2층에는 '지구시간여행관' 하천습지의 생물들을 만나요 '모두 함께 친환경 자전거를 타요' 등으로 구성된 '지구·담양체험존'이 있다.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의 전시 해설, 탐구 학습은 미리 전화 예약(061-380-3088)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관)은



새로 단장해 최근 문을 연 호남기후변화체험관(담양어린이과학체험관) 1층 모습. <담양군 제공>

휴관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개구리 생태공원, 에코교육관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습지의 가치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환경보전의 기본가치를 배우며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농지 불법 전용 상시 단속

비농업 자재 야적 등 적발시 원상회복 명령 조치

나주시가 농지를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나주시는 각 읍·면·동에 불법 전용 업무 편람을 전하고 합동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는 비농업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농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주거·숙박·여가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발한다.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들쭉날쭉 '농지법 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나주시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농지법 58조에

따라 고발 조치가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는 최근 산포면 등정리 일원에서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집단 민원을 받고 도시과, 건축허가과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앞으로 나주시는 읍·면·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업무 연찬·교육을 진행하고 지속해서 행정제도·지도 등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